

# 해남군 “17조 투자 국가시데이터센터 구축 환영”

### 삼성전자 솔라시도에 추가... AI컴퓨팅센터와 시너지 첨단산업 도약... “지역발전 역사적 전환점 왔다” 기대

해남군이 정부와 기업의 서남권 첨단산업 대규모 투자에 대대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2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의 후속조치로,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부 주관으로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가 열렸다.

보고회를 통해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호남의 글로벌 첨단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미래 에너지 등 첨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약 425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해남 솔라시도에는 약 17조원을 투자해 국가시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해남군은 이같은 투자 계획에 지역발전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시작됐다는 기대감과 함께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윈윈형 행정절차 구축 등 가능한 모든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서남권 대규모 투자계획이 마련된다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서남권의 부지, 전력, 용수 등 제반 입지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해남군은 이미 6년여 전부터 AI·에너지 산업 유지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 솔라시도 기업도시내에 당장 착공이 가능한 산업용지 200만평을 비롯해 632만평 규모의 광활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풍부한 전력과 영암호·금호호 등 풍부한 용수도 갖



국가AI컴퓨팅센터 조감도

춰 일찍이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AI·에너지·반도체 투자의 최적지로 꼽혀왔다.

특히 삼성SDS 컨소시엄의 국가AI컴퓨팅센터가 2028년 가동을 목표로 착공을 앞두고 있어, 반도체 공장(팹)과 함께 AI시대 필수제로 꼽히는 대형시데이터센터(AIDC)를 빠르게 구축해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 구축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앞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주거와 교육, 교통 등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조기완공, KTX 연결, 마이스터고 육성, 국제학교 유치, 6600세대 규모 주거단지 개발 등에도 적극적으로



솔라시도 기업도시 조감도

나서고 있다.

또 국회에 계류중인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RE100산단 조성 관련 기업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명연관 해남군수는 “대한민국 첨단산업

의 미래를 보고 해남 솔라시도를 선택해준 기업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국가컴퓨팅센터의 추가 데이터센터 구축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심장이 될 수 있도록 정부, 특별시, 박지원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gwangnam.co.kr



### 무안, 성숙낙지 7000마리 방류 지속가능 낙지 생산 기반 조성

무안군은 낙지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낙지목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관내 주요 낙지 서식해역 4개소에 성숙낙지 약 7000마리를 방류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추진됐으며, 방류 대상 해역은 압착어촌계, 동암어촌계, 수암어촌계, 탄도어촌계 등 4개소다. 군은 주요 산란기인 금어기에 맞춰 성숙낙지를 확보해 어촌계별 해역에 방류했다.

낙지목장 조성사업은 낙지 자원량 감소에 대응해 주요 서식 해역에 성숙낙지를 방류함으로써 자연 산란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낙지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이번 방류가 실제 자원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촌계별 방류 해역의 특성을 고려해 성숙낙지를 방류했으며, 앞으로 방류 해역 관리와 불법어업 예방 활동을 병행해 사업 효과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성숙낙지 방류가 자연 산란을 유도하고 낙지자원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촌계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낙지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

## 신안 국제 문페스타, 내일 흑산도서 열린다

### 축제로 세계와 소통한 문순득 정신 계승

4일 신안 흑산면에서 ‘2026 신안 국제 문페스타’가 (사)세계마당아트진흥회의 주관으로 열린다.

축제의 주인공은 우이도 출신 흥어장수 문순득이다. 그는 1801년 흑산도에서 흥어를 구입해 나주 영산포로 이동하던 중 큰 풍랑에 휘말려 일본에 편입되기 전의 류큐국(오кина와), 스페인의 식민지가 된 여송국(필리핀), 포르투갈에 의해 개항된 오문(마카오) 그리고 청나라(중국)를 경유해 3년 2개월 만에 고향 우이도로 되돌아왔다.

문순득은 표류 기간 동안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고, 귀향 후 유배인 정착전을 만나 ‘표해시말’, ‘운곡잡지’, ‘유암총서’ 등 기록을 남겼다.

이번 축제는 주행사 ‘2026 신안 국제 문페스타’와 인문학 강좌 ‘섬 로드 스펠라’로 구성됐다. 주행사는 흑산도에서 열린 마당극 ‘문순득 표류기’를 비롯해 문순득이 표류했던 국가의 문화를 공연예술로 만날 수 있다.

부대 프로그램으로 흑산도 철새박물관에서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의 문순득

특별전시가 열린다.

섬 로드 스펠라는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공연예술 체험형 인문학 강좌로, SNS를 통해 모집된 30명의 참가자는 우이도·비금도·도초도·흑산도에서 문순득 관련 문화유산을 답사하며 공연예술과 역사 체험을 통해 그의 삶을 입체적으로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 국제 문페스타는 신안군 대표 해양인물 문순득의 역사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공연예술축제다”며 “흑산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축제가 열리는 7월 첫 주 주말을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영암군은 최근 ‘민선9기 지방선거 당선자 사회연대경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공유하고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영암군청

## 영암, 전국 사회연대경제 협력 강화

### 정책간담회서 영암 사례 공유·제도 개선 방안 제안

영암군은 최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주관 ‘민선9기 지방선거 당선자 사회연대경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공유하고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회연대경제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시행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윤희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의원,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 사회연대경제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영암군은 지역 대표 사회연대경제 사례인 ‘천사펀드’를 소개하고, 사회

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건의했다.

군은 민선 8기부터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지역 맞춤형 사회연대경제 기반을 확대해 왔다. 최근에는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사업’ 공모에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되는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사회연대경제는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기반이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

## 완도, 적조·고수온 대응 모의 훈련 실시

### 관계 기관 합동 드론·황토 살포기·선박 동원 등 점검



완도군은 최근 신지면 송곡 해상에서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과학원 완도지원, 완도해양경찰서,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적조·고수온 발생에 대비한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해 선박 25척과 황토 살포기 1대, 드론 2대 등이 동원됐으며, 어업인과 해경,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먼저 드론과 기술 지도선(해양 9호)을 활용해 적조 확산 여부를 확인하고 적조 발생 상황을 전파, 군 정화선(정청 12호)

을 투입해 적조 구제 물질인 머드 스톤을 살포했다.

이어 해경 방제정(방제 1호정)의 소화포 분사와 완도통발협회 어선을 활용한 수류 방제 작업 등 방제 활동이 이뤄졌다.

아울러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차광막 설치와 액화 산소 공급기 가동 상태를 점검하는 등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김현란 완도군 해양정책과장은 “훈련을 통해 적조·고수온 발생에 대비한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며 “적조·고수온 특보가 발령되면 막이 공급 중단, 액화 산소 공급기 가동, 양식장 예찰 강화와 함께 적조 발생 시에는 황토 살포, 조기 출하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에 어업인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MEGABOX

www.megabox.co.kr    ARS 1544-0070

새롭게 개편된  
리클라이너 영화관!

메가박스 광주 상무점에서  
만나요!